

all ways \_ 봄

멀리가면 다 진다

울 동네에서  
하얀 사월 즐기자

인천 벚꽃의 추억 \_ 자유공원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왕벚꽃향 \_ 월미산

전통 담장에 기댄 백색의 향연 \_ 화도진

도심 속 하얀 오솔길 \_ 수봉공원

오후 한낮 째깍이 벚꽃놀이 \_ 구월동 중앙공원

등하굣길 벚나무 사열 \_ 연수구 벚꽃로

올해도 어김없이 벚꽃터널 \_ 인천대공원

벚꽃 맛이 오픈 팩토리 \_ SK인천석유화학

문학산의 하얀 줄기 \_ 청학동 마을

굽이굽이 천년 벚꽃길 \_ 강화 북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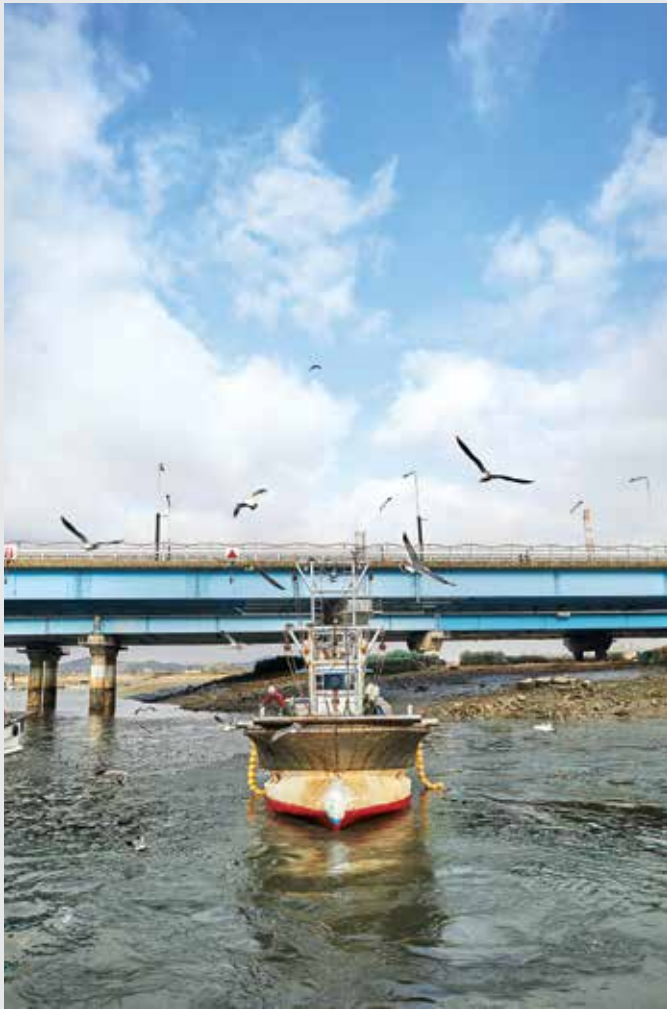
그리고

푸른 바다에 떠 있는 \_ 인천 앞바다의 하얀 꽃 섬들...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사진은 사람과 마음을 '잇기' 위해 손 내미는 '잇다스페이스'의 정희석 작가.





## 귀항, 다시 출항

이제 귀항이다. 새벽에 닻을 올린 배는  
꼬박 열두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포구에 다다랐다.  
어물전이 뱅뱅하게 채워지고, 흥정 소리가 허공으로 치솟았다가 잦아든다.  
‘1kg에 3만5,000원.’ 진달래가 만개하면 꽃게 철이라고 했다.  
아직 성수기가 아니라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물건이 실해서 값이 잘 나왔다.  
뱃사람들의 고된 하루에 이제야 쉽표가 찍힌다.  
어부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 끈끈한 바닷바람이 스친다.  
몇 시간 후면 아버지는 다시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할 것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굿모닝인천

발행처 인천광역시 — 발행일 2018년 4월 1일 —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 편집인 박혜란(브랜드담당관)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 팀장) — 기획·취재 편집위원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 사진 김보섭·류창현·김성환·최준근  
디자인·인쇄 (주)씨에디터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 CONTENTS

- 04 인천미소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外
- 06 봄 자전거 여행 웅진군 산·사·모도
- 10 커버스토리 Retro? Newtro! ④ 잇다스페이스
- 14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① 인천 원도심의 재생 방향
- 20 인천 VS 세계 도시 ④ 인천대교 VS 중국 수통대교
- 24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반려견 놀이터 / 유기견 보호
- 30 십정2구역 이야기 열우물 연가戀歌
- 36 얼굴 좀, 봅시다 ‘열우물 체계바라’ 꿈꾸는 싱어송라이터 강현구
- 38 문화 캘린더 선데이 콘서트-더 브라스 퀸텟 外
- 42 시정뉴스 인천 서구~부천 원종~서울 홍대, 지하철 연결 추진 外
- 48 컬러링 인천 인천대공원 벚꽃터널
- 50 Info Box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外
- 55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철학을 팔다 LUSH
- 56 인천 冊 포토에세이집 몽ᄁ당 인천
- 58 모닝 커피 한잔 ‘굿모닝’ 인천
- 59 인천 사는 나무 소이작도 검팽나무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한 ‘굿모닝인천’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과 독자를 잇는 ‘미’디어  
독자에게 인천을 알리는 ‘소’식통  
‘인천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늘 열려 있습니다.  
항상 미소 짓습니다.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 봄빛 무르익을 때 인천을 찾으리

독자 박정덕 경기도 안성시



‘굿모닝 인천’을 처음으로 받아보고 반가움 반 설렘 반으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추억의 퍼즐을 맞추느라 그만 자정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인천과의 남다른 인연 때문인지 ‘호마의북풍 월조소남지(胡馬依北風 越  
鳥巢南枝)’라는 고시(古詩)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호마는 언제나 북쪽 바  
람을 향해 서고 남쪽 월(越)나라에서 온 새는 나무에 앉아도 남쪽으로 향  
한 가지를 골라 앉는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고향에 대한 인연을 잊  
겠습니까.

인천은 비록 제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인천에 얹힌 인연만은 어찌  
면 고향만큼 각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0년에 인천교대(경인교육대학교)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고 지금의  
안산 고잔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인선 협궤열차를 타고  
남동역까지 다니던 비릿한 소래포구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상전벽해라고, 몰라보게 변해버린 인천을 보면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  
니다. 형클어진 추억 한 조각도 놓치지 않으려고 손자의 손을 잡고 송도  
국제도시에서 수상택시를 타고, 차이나타운을 찾아 자장면을 먹기도 했  
습니다. 때로 인천대교를 지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여행을 떠날 때면  
몰라보게 발전한 인천이 그저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올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개장해 육지와 바다는 물론이고 하늘까지 두루 갖  
춘 인천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납니다. ‘굿모닝 인천’이  
이제 ‘파이팅 인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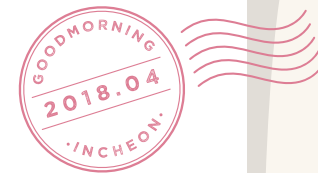
봄빛이 그리워 생강나무에 물오르는 소리가 들릴 때쯤 다시 인천을 찾  
아야겠습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의 목소리’



### 감동 인천

‘굿모닝인천’ 3월호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미추홀도서관에서 ‘북스타트’ 활동을 하고 있는 최정에 선  
생님으로, 올해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굿모닝인천’은 인천시 시정은 물론이고 가슴 뭉클한 사연까지 전해주는 ‘감동  
선물 꾸러미’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세요~

- 김인강 남동구 인주대로

### 친절한 인천 가이드

‘굿모닝인천’이야말로 인천을 대표하는 매거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한 친절한 가이드북이라고나 할까요. 앞으로도 인천 구석구석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를 펼쳐 내,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잡지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인천 파이팅, 굿모닝인천 파이팅.”

- 조석 경기도 의정부시

### 인천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보다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굿모닝인천’ 한 권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과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는 듯한 글과 사진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좋아하는 기사는 커버스토리로, 인천의 오래됐지만 새로운 명소  
가 친근감 있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인천 곳곳을 담아내는 기사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현정 남동구 예술로

### 도전! ‘올 웨이즈 인천(all\_ways\_Incheon) 컬렉션

‘굿모닝인천’을 보면서 인천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인천에 가 본 것처럼, 도시에 대해 생  
생하게 알 수 있어 좋습니다. ‘굿모닝인천’을 일 년간 모으면 인천의 도시브랜드 ‘올 웨이즈 인천(all\_ways\_  
Incheon)’이 완성되네요.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컬렉션이 완성되면 정기구독하면서 생겨난 도시에 대  
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두터워지겠죠?

- 박현정 창원시 진해구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 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allways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llways\_incheon)  
웨이보(www.weibo.com/incheon)

## ‘굿모닝인천’ 1년 모으면 ‘올웨이즈 인천!’

‘굿모닝인천’을 올 한 해 매달 모아 차곡차곡 쌓으면,  
인천시 도시 브랜드 ‘올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이 완성됩니다.  
‘굿모닝인천’ 2018년 컬렉터에 도전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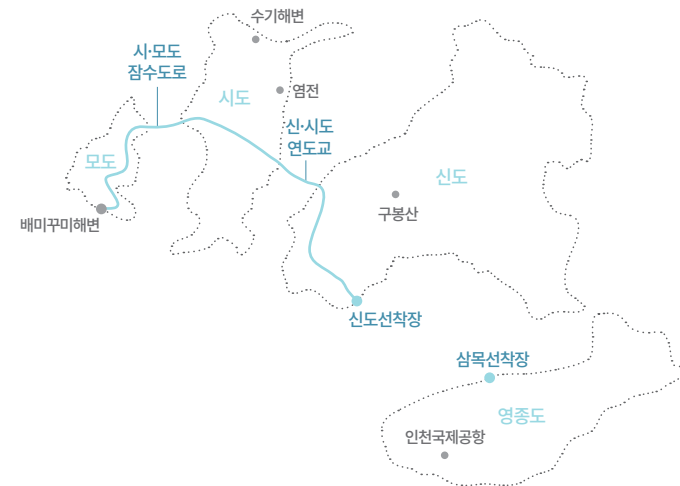


## 다리로 이어진 삼형제 섬

## 바다 누비며 바퀴 굴리는 맛

글 김기환 월간 '산' 기자 | 사진 C영상미디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 삼목선착장에서 장봉도 가는 배를 타고 신도에 들른다. 신도는 공항철도와 선박을 통해 접근이 쉬워 수도권의 섬 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게다가 신도는 시도, 모도와 다리로 이어져 있어 자전거를 즐기는 이들에게 일석삼조의 여행지로 소문이 나 있다. 배 한 번 타고 세 섬을 볼 수 있으니 큰 이득이다.



### 자전거 추천 여행 코스

#### 1일차

삼목선착장→신도→해안도로→연도교  
→시도 염전→드라마 '슬픈연가' 촬영지  
→수기해변(1박)

#### 2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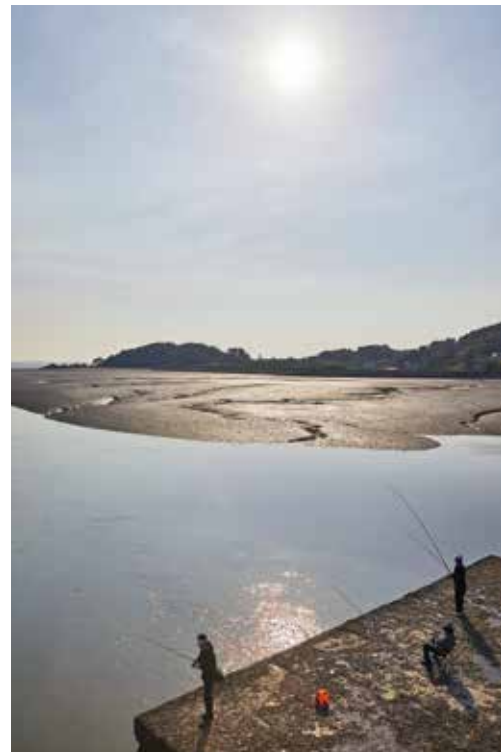
수기해변→모도→배미꾸미해변 조각공원  
→신도 구봉산→구봉정

### 자전거 타고 여행하기 좋은 섬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신도로 가는 배를 탄다. 이곳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통해 접근이 쉬워 주말이면 많은 이들로 붐비는 선착장이다. 특히 차를 배에 싣고 섬에 들어가려면 보통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바다를 건너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하다. 대기시간이 필요 없는 자전거로 여행을 떠나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신도, 시도, 모도는 자전거 여행에 딱 맞는 작은 섬이다. 바로 옆 장봉도 역시 라이딩을 즐기기 좋지만, 아기자기함은 확실히 신도, 시도, 모도가 우위다. 세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며 각기 다른 풍광과 해안선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아라뱃길처럼 긴 거리를 달리는 라이딩에서 느낄 수 없는 여유도 만끽할 수 있어 좋다.

신도선착장에서 시도를 거쳐 모도 끝의 배미꾸미 해변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6km 정도다. 휘파람 불면서도 다녀올 수 있는 짧은 거리다. 게다가 세 섬을 연결하는 길은 경사가 거의 없다. 당일 라이딩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섬 여행이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하기 위해 자전거에 캠핑 장비를 실었다.







모도 남쪽 체험어장 부근의 바위에 올라 주변을 조망하면 가슴이 탁 트인다. (왼쪽)  
구봉산 안개 낀 숲과 아침햇살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광.

볼거리 많은 봄맞이 여행지

신도선착장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 바닷가를 따라 뻗어 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길은 양쪽으로 갈린다. 먼저 시도로 가기 위해 왼쪽의 작은 언덕을 넘는다. 기어를 낮추고 페달을 빠르게 돌리니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기분 좋은 땀방울이 이마에 맺힌다.

신도1리를 지나 바닷가로 이어진 해안도로를 따르면 신도와 시도를 연결한 연도교가 눈에 들어온다. 시도에는 북도면사무소와 파출소, 보건소, 공설운동장, 우체국 등의 주요 시설이 모여 있다. 세 섬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신도에서 다리를 건너자마자 오른쪽 길로 들어 서니 조그만 연전이 보인다. 일조량이 좋은 여름철에는 소금 만드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시도에서 나온 소금은 염도가 낮아 김치를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한다.

시도 북도우체국 부근의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이동한다. 포장도로가 끝나는 곳에 위치한 드라마 ‘슬픈연가’ 촬영지에는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 바로 옛 수기 해변은 오래전 방영된 드라마인 ‘풀하우스’ 세트장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세트장이 철거되어 사라졌지만 해변의 아름다움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곳에 화장실과 식수대 등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시도에 이곳보다 환경이 좋은 캠핑장은 없다. 바다를 보며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해변에 텐트를 펼친다.

신도 구봉산에서 보는 시원한 조망

수기해변에서 하루를 묵은 뒤 모도로 향한다. 시도 중심부의 삼거리에서 서쪽의 작은 언덕을 하나 넘으면 모도로 이어지는 긴 다리가 보인다. 모도로 건너가는 도중에 왼쪽으로 보이는 갯바위 위에 사람 형태의 조각품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모도 끝의 배미꾸미 해변의 조각공원에 가면 더욱 놀라운 작품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 조각공원은 조각가 이일호씨가 성(性)을 주제로 만든 작품을 해변에 하나둘 설치하면서 조성됐다고 한다. 조각공원 앞 작은 해변은 여름철에 펜션 이용객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곳이라고 한다. 시간만 있다면 뛰어들고 싶은 아담한 바닷가다.

선착장이 있는 신도는 세 섬 가운데 가장 크다. 볼거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곳에는 구봉산(179.6m)이라는 큰 산줄기가 중심을 잡아 주며 우뚝 솟아 있어 나뭇의 매력이 있다. 구봉산에는 산정을 중심으로 환상(環狀) 임도가 조성되어 있어 산악자전거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이다. 하지만 임도로 오르는 초입이 상당히 가파른 편이라 강력한 체력이 필요하다.

이 산 최고의 전망대는 정상 동쪽 능선 상의 ‘구봉정’이다. 구봉정은 영종도 방향의 전망이 기가 막힌 곳이다. 바다와 갯벌은 물론, 인천공항의 드넓은 활주로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해질 녘 바다 너머 보이는 반짝이는 영종도의 밤 풍경이 일품이다.



찾아가는 길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면 10분 만에 신도선착장에 닿는다. 인천공항철도 운서역에서 삼목선착장까지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20분 정도 소요된다. 인천시민은 선박 운임료의 45% 할인.



숙식

신도, 시도, 모도에는 펜션이 밀집해 있다. 수기해변에 자리한 풀사이드펜션(☎752-2580, poolside.co.kr)의 분위기가 좋다. 캠핑을 좋아한다면 바닷가에 텐트를 치자. 시도의 수기해변이 시설과 풍광이 가장 좋은 곳이다. 산속에서 캠핑을 하려면 전망 좋은 구봉정이 최고의 장소다. 하지만 짐을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한다.





# RETRO? NEWTRO!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온전히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그 네 번째로 100여 년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잇다스페이스'를 찾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잇다스페이스'는 공연, 전시를 비롯해  
 실험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잇다'에 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청춘의 꿈 자라던,  
 썩리재 골목 모퉁이

하마터면 스쳐 지날 뻔했다. 개항장에서 배다리로 넘어가는 썩리재 고갯길. 그 길 골목 모퉁이 낡고 오래된 벽돌 건물에 '잇다스페이스'가 있다. 입구에는 '동양서림' '새전과·표준학력고사·중학전과·새산수완성'이라는 정겨운 단어가 빛바랜 채 새겨져 있다. 추억으로 통하는 시간의 문처럼 느껴진다. "나를 만나기 전 이 건물의 마지막 역사, 그 시간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닫힌 공간 멈춘 시간이, 목(木) 조형 작가 정희석(45) 씨를 만나면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곳은 1920년대 소금 창고로 첫 숨을 텄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화약을 제조하는 원료로 쓰기 위해 소래에서 소금을 만들었다. 그 탐욕의 결정체가 이곳 바닷가 창고에 쌓여 바다 건너 섬나라로 속절없이 흘러 들어갔다. 아픈 역사가 깃든 건물은 1940년대 일본식 한증막으로 쓰이다, 10년 후 서점 '문조사'에 자리를 내어주었다. 대부분 동네 사람의 기억에는 헌책방 '동양서림'으로 남아 있다. 너도 나도 어렵던 시절, 배움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부지런히 책방을 드나들었다. 젊은 지성인들과 소년 소녀들이 이 안에서 지문의 때가 스민 책을 넘기며 내일을 꿈꾸었다.

어둠 속 빛

끊어진 — 시간을 — 잇 — 다 —





단단한 벽에 뿌리내리며 즐기게 이어온 생명력.  
나무줄기를 따라가면 놀랍게도 건물 밖에 있는  
나무의 몸체로 이어진다.



## 폐허에 움튼, 나무 한 그루

책방이 문을 닫고 20여 년간 숨죽이고 있던 공간은, 3년 전 정 작가를 만나면서 서서히 기지개를 켜다. 사방이 꽉 막힌 경남 거창에서 나고 자란 그는, 언젠가는 소금기 뺀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릴 적 브라운관에서 보던 인천이라는 도시에 막연한 호기심을 품기도 했다. 그 운명 같은 끌림이, 15년 전 그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다.

살다 보니 작업 공간을 만들고 싶어져, 무작정 배다리 주변을 배회했다. 몇 달을 골목골목 헤매었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 그만두려고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시선을 던진 후미진 골목 사이에서 오래된 벽돌 건물의 옆면을 ‘발견’했다. 순간, ‘아, 여기서!’ 마음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20여 년 시간이 멈춘 옛 공간은 자욱한 먼지와 쓰레기 더미에 묻혀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의 한숨이 깊어져만 갔다. 하지만 그는 어둠이 깔린 폐허를 비추는 한 줄기 빛을 놓치지 않았다. “놀랍게도 죽어있는 공간에 나무 한 그루가 숨 쉬고 있었어요. ‘내가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 잃고 버려진 존재가 되어 몸뚱이가 잘려나간 오동나무. 하지만 나무는 기어코 단단한 벽면에 뿌리를 내리고 부서진 슬레이트 지붕 위로 가지를 뻗어, 틈으로 스미는 빗물과 햇살 한 줌으로 버티고 있었다. 평생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던가. 폐허에 움튼, 생명을 지키고 싶었다.

함께 만든 모두의 공간이다.  
‘잇다스페이스’를 짓겠다고 하자,  
주변 예술가들이 ‘소셜펀딩  
(Social Funding)’으로  
마음과 마음을 모았다.



시간의 증거들을 붙잡고 싶었다.  
그래서 옛 공간의 흔적들을 온전히 남겨 두었다.  
벽면에 걸린 빛바랜 태극기도  
처음 발견했던 모습 그대로다.

## 마음과 마음, 문화를 ‘잇다’

묵직한 시간의 문을 여는 순간, 나무 향기가 진하게 밀려든다. 100여 년 켜켜이 쌓인 긴 시간과 오늘이 혼재된 공간이 묘한 분위기를 풍긴다. ‘잇다스페이스’가 등지를 틀고 어둡고 음침한 골목에 활기가 돌자 가장 반긴 건 동네 주민이었다. 그들로부터 이 일대에 깃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더 각별해졌다. “당시 젊은 문인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문학과 인생을 논하고 낭만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공간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어요.”

그 오래됐지만 빛나는 시간의 증거들을 붙잡고 싶었다. 그래서 동양서림의 간판을 대문에 걸고, 마루로 쓰던 자투리 나무를 덧대어 문을 만들었다. 틈 사이로 빛이 새어드는 낡은 벽돌 벽, 나무가 숨을 내쉬던 지붕의 구멍도 온전히 남겨 두었다. 벽면에 늘어붙은 오래된 신문, 누렇게 빛바랜 태극기도 처음 발견했던 모습 그대로다. “언젠가 술에 거나하게 취한 어르신이 오셔서, 저 태극기를 절대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나온 시간과 역사를 함부로 거스르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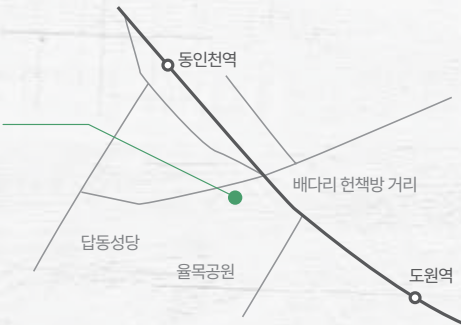
벽을 감싸는 나무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건물 밖에 있는 나무의 몸체와 하나로 이어진다. 한 세기 가까이 부침 많은 세월을 견뎌 온 이 공간의 강인한 생명력을 말해주는 듯하다. 모두 떠나고 먼지 속에 침잠하던 공간에 오롯이 핀 생명. 잇다스페이스에 가면,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희망이 ‘잇다’.

### information

잇다스페이스 [itta space]

중구 참외전로 172-41

☎ itta1974.modoo.at





# 도시 생태계

포용도시  
스마트시티를  
활용한  
도시생태계  
만들기

글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응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  
사진 성균관대학교 스마트그린시티랩, 셔터스톡



© hacin.com



© hacin.com

# 활 용 화



도시는 살고 일하고 또 여가와 문화를 즐기는 기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장소이다. 주거, 일, 여가의 장소가 통합되고 균형을 이루면 교육과 산업이 촉진되고 도시 생태계가 조성된다. 그러나 지난 세기 대부분의 도시는 제조업을 내보내고 서비스와 소비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했다.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찾는 청년들의 기회를 감소시켜 원도심의 활력을 사라지게 했다.

최근 들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시의 정체성이자 경쟁력의 원천인 전통적인 원도심을 재생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과 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도심 재생은 도시생태계가 회복되어 지속적으로 사람이 모여야 성공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도시에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동네를 회복해가는 포용도시의 개념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가 융합된 모델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인천의 현재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하고 통합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hacin.com



도시 생산기능의 회복과  
스마트 시티 플랫폼

인천 원도심은 생산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이 됐다.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전통 제조업은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생산성이 낮아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시 성장할 가능성도 낮다. 전형적인 도심 쇠퇴 업종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도시 내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창조적 인재가 어우러진 산업생태계 회복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첨단 제조업이 도시 내에 입지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 생산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낙후돼 가는 도심을 혁신지구로 회복시킨 뉴욕을 비롯해 런던의 테크시티, 보스턴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는 전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창조산업의 거점이자 활력 넘치는 새로운 도시문화의 발신지가 되었다.

쇠퇴에 직면한 인천 원도심도 첨단제조업을 기반으로 생산기능을 회복하고,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조성해 여성, 노인, 청년 누구나 좋은 일 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과 혁신적 창업가들을 유인하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원도심을 거점으로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의 융합을 주도하는 창업활동으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런던 테크시티(위)  
런던 구글 캠퍼스(아래)



보스턴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 Wikimedia Commons(Rene Schwietzke)



혁신형 창업생태계를 통한  
도심 활력 회복과 건기 좋은 도심 가꾸기

창조적 인재들은 대중교통, 보행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24시간 활동할 수 있으며, 다른 인재들과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한다. 따라서 원도심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선택적으로 일하고, 놀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창조적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유연하게 계약할 수 있는 창업주거, 아이디어를 쉽게 실현해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다른 인재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우연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기반시설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모여 서로를 벤치마킹하고 법률·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육성·지원시설과, 숙련된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배울 수 있는 학습·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원도심에서 빠져나갔던 생산기능이 회복될 것이며 주거, 일, 여가의 기능이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용산전자상가에 위치한  
디지털 대장간(위)  
종로구 세운전자상가 안의  
팹랩서울(아래)







울목동

### 동네에 기반한 주거공동체의 회복

다음은 원도심 주거 공동체 기능의 회복이다. 도시재생 이념의 하나인 포용도시는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도심의 포용도시화는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저층 주거지부터 출발해야 한다. 서구의 기초 주거구역 단위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도보생활권인 ‘근린주구’라면, 우리나라는 물을 나눠 마시는 ‘우물(洞)’을 중심으로 보행거리 내 생활공동체인 ‘동네’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물이 아니라 노상주차장이 동네를 점령하고 있다. 주민공공시설이 마련돼야 동네 골목이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아이들과 노인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주민공동시설은 우물의 역할을 대신하는 동네의 랜드마크다. 동네 공원은 주민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장소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층 주거지의 생활가로인 골목이 다시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주민공동시설과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인천 원도심 동네 주민들의 체감과 공감을 바탕으로 도시 재생이 이뤄져야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자생력을 갖춰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환경개선과 주민공동시설 설치는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인천 원도심의 동네들이 가진 정체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동네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섬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 작은 성공으로 시작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도시재생으로

도시는 다양한 기능과 사람들이 어우러진 하나의 생태계다. 따라서 인천 원도심 도시재생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생산, 여가와 문화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도시생태계 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원도심 쇠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산업을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첨단제조업의 육성과 혁신형 창업생태계 조성이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른 여러 도시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재생은 소요 시간과 구체적 성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목표연도와 성과를 지향하기보다 과정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큰 사업부터 시작하기보다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며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이 필요하다. 포용도시와 스마트 시티를 연계한 인천시 원도심 재생이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대표적 모델이자 세계적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송현동 일대





인천대교

# INCHEON BRIDGE

VS

수통대교

# SUTONG YANGTZE RIVER BRIDGE

## 안전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

인천대교 고속도로는 총연장 21.38km 중 교량구간이 18.38km에 이르며,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교량이다. 수통대교는 주탑의 높이가 306m에 달하고, 주탑간의 거리가 1,088m에 이르는 중국의 대표 사장교로써, 주경간 부문에서 세계 2위의 교량이다.

글 인천대교(주) 사회공헌팀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셔터스톡



인천대교는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통대교는 리히터 규모 5.0 정도인 지진을 견딜 수 있다.

## 바다 위 인천대교, 양쯔강 위 수통대교

인천대교 고속도로는 총연장 21.38km 중 교량 구간이 18.38km에 이르며,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교량이다.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 남부,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통행 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되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까지는 1시간에서 15분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수통대교는 주탑 높이가 306m에 달하고, 주탑 간 거리가 1,088m에 이르는 중국의 대표 사장교로서, 주경간 부문에서 세계 2위의 교량이다. 상하이와 난통 지역 연결을 위하여 양쯔강 위에 세운 교량으로, 연장이 8,206m이고 교량 위 도로의 높이는 최고 62m에 달한다.(인천대교는 연장 18,384m, 최고 높이 74m이다.) 수통대교 개통으로, 이전에 선박으로 4시간 걸리던 운송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인천대교

## INCHEON BRIDGE

### 인천대교

개통 2009년 10월  
공사기간 52개월  
투자비용 2조4,860억원  
주경간 800m  
총연장 18,384m  
주탑높이 234m  
해상 높이 74m  
도로 왕복6차선

V S

## SUTONG YANGTZE RIVER BRIDGE

### 중국 수통대교

개통 2008년 07월  
공사기간 61개월  
투자비용 8,788억원  
주경간 1,088m  
총연장 8,206m  
주탑높이 306m  
해상 높이 62m  
도로 왕복6차선

© Xinhua/Xu Congjun



수통대교

###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다리

인천대교는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는 전 단계에 지속 가능성 개념을 도입한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를 최초로 민간 투자 사업에 도입한 국내 유일 사업이다. 금융 단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행사와 건설사를 분리하고 입찰 경쟁을 시행했다. 이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절감해 통행료 인하를 이뤄낼 수 있었다. 건설 기간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PM의 선진 관리 기법을 도입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으며, 운영 기간에는 PM 기술을 전수한 운영 관리 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PM을 적용한 인천대교는 세계프로젝트경영협회(IPMA)에서 ‘세계 최우수 프로젝트 대상’을 받았다(2015년). 이탈리아 GE Oil & Gas사, 스위스 알스톰(Alstom)사, 러시아 및 동유럽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 등 세계 20여 개국의 다국적 기업이 추진하는 거대 프로젝트와 최우수 프로젝트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인 결과, 비회원국이던 우리나라의 인천대교가 ‘세계 최우수 프로젝트 대상’을 받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인천대교가 모든 부문에서 다른 경쟁 프로젝트들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다.”

- 에릭 맨슨 IPMA Award 총괄심사위원장

### ‘세계 최우수 프로젝트 대상’ 다리

인천대교의 ‘세계 최우수 프로젝트 대상’에 힘입어 이듬해에 대한민국은 IPMA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17년에는 세계 PM 학술회까지 유치했다. PM 분야에서는 볼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가 시공 위주 건설을 벗어나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추진할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송도와 영종도 사이의 서해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인천대교를 건너 영종도를 방문하면, 해안의 인천대교 기념관을 무료로 구경할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운영하는 카페에서 차를 즐길 수도 있고, 전망대에서 송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천대교의 장관을 감상할 수도 있다. 기념관 앞에는 세계 5대 갯벌인 영종도 갯벌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그 갯벌에서 살아가는 철계를 찾아 매년 알락꼬리마도요 같은 희귀새가 방문하고, 희귀 철새들을 관찰하고자 각국 탐조가들이 모여드는 곳이 인천대교 기념관 앞 갯벌이다.



인천대교 기념관





## 반려동물, 배려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스러운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늘고 있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기댈 ‘누군가’로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애견에 대한 관심과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반려견에 대한 인천시 정책을 소개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공간 1 - 야외

### 넓찍한 야외 공간이 매력적인 ‘인천 개공원’

혼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야근, 출장, 여름휴가, 혹은 명절 등 집을 비워야 할 때 늘 걱정이 앞선다. 반려견만 홀로 집에 남겨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마음처럼 우리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견주들의 마음을 헤아려 문을 연 곳이 애견카페 ‘인천 개공원’이다.

인천대공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은 2,975m<sup>2</sup> 규모에 애견운동장, 실내카페, 수영장, 호텔, 탄산스파목욕, 유치원 등의 시설을 갖춘 애견을 위한 종합힐링센터다. 깔끔하고 쾌적한 시설 덕분에 채널 A ‘개밥주는 남자’를 이곳에서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출근 등으로 집을 비우는 사이 홀로 남는 반려동물을 위한 ‘유치원’은 픽업서비스까지 가능하다. 운동장은 2군데로 중·소형 견종을 위한 곳과 대형견 운동장이 구분돼 있으며, 호텔견이나 별도 관리가 필요한 반려견을 모아놓은 공간도 있다. 운동장은 집 안에만 있어 답답했던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에 충분한 규모다.

유기견 봉사활동을 통해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고 결국 입양한 강아지들을 위한 공간을 고민하다 남편과 함께 2년 전부터 ‘인천 개공원’을 운영하게 됐다는 김민선(35·부개동) 씨. 그녀는 반려견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견주들의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조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아지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아지에 대해 공부 하면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 개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일까. 인천 개공원에 상주하는 모든 직원은 반려견 훈련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넓찍한 공간 덕분에 ‘인천 개공원’에는 프리스비 경기(강아지 원반던지기)를 앞두고 연습 중인 반려견을 종종 볼 수 있다.



주소 | 남동구 무네미로 201-15  
영업시간 | 오전 11시~오후 9시  
문의 | ☎ 461-6021







‘도니’에서는 도그 어질리티 대회에서 입상한 스탠더드 푸들과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하는 아메리칸 불리도 종종 만나볼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공간 2 - 실내

### 사계절 수영이 가능한 ‘애완견 놀이터 도니’

청라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애완견 놀이터 도니’는 애견카페와 유치원, 호텔, 미용 시설, 용품점과 실내수영장을 갖춘 반려견 종합센터다.

청라 커널웨이의 멋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강아지들과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오픈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소문을 듣고 찾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시선을 사로잡는 세련되고 널찍한 실내공간과 야외 테라스에서 맘껏 어울려 노는 개들을 보는 애견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개를 매개로 애견인들끼리 금세 친해져 알짜배기 정보를 공유하느라 즐겁다.

항상 집에 간혀있는 강아지가 불쌍해 보여서 아예 애견놀이터를 차리게 됐다는 주인장 조용섭(33·경서동) 씨는 전직 SK와이빈스 선수다. “야구를 그만두고, 애견놀이터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강아지를 예뻐해 주시고 하는 일도 적극 응원해 주십니다.” 강아지에 대한 조 씨의 지극한 애정은 관련 공부와 메뉴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덕분에 스타벅스의 반려견용 음료인 ‘퍼푸치노’를 응용해 만든 ‘강아지 전용라떼’는 반려견과 견주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단다.

‘애완견 놀이터 도니’는 무엇보다 사계절 수영이 가능한 실내수영장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수영장에서 강아지와 신나게 놀 수 있다. 겨울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물 대신 볼풀로 가득 채워준다. 또 상주견이 있어서 애견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강아지들과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다.

주소 |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8-18 청라캐널큐브 801호  
영업시간 | 정오~오후 10시(단, 유치원은 오전 6시부터 운영 시작)  
문의 | ☎ 010-9249-7343



### 공존하며 교감하는 공간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점차 늘고 있지만, 반려견이 맘껏 뛰놀면서 견주와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시는 올 하반기에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

공원에선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일상이 됐고 반려견 전용 가구와 전용 호텔까지 등장하는 사회가 됐지만, 반려견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도 함께 늘고 있다. 우리시는 ‘반려견 놀이터’로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지역 등록 반려견은 지난해 말 기준 7만5,000여 마리에 달한다. 미등록 반려견을 합치면 10만 마리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반려견 놀이터는 단 한 곳도 없다. 시가 지난해 8~9월 실시한 설문조사(652명 참여)에서 응답자의 85.3%가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까지 인천대공원 내에 약 3,400㎡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 놀이터는 개가 오르내리며 놀 수 있는 도그워크와 저니브리지, 굴을 통과하는 형태의 휴틀라인, 막대기 형태의 워브폴과 배변 모래밭, 음수대, 메시 펜스, 의자, 폐쇄회로TV(CCTV), 관리사무소 등으로 꾸며진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은 올 연말까지 달빛축제공원 미조성지(1만3,000㎡)를 공원으로 만들고 반려견 놀이터(3,000㎡ 내외)를 조성할 예정이다. 5월까지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 절차가 이뤄지고, 6월부터는 공사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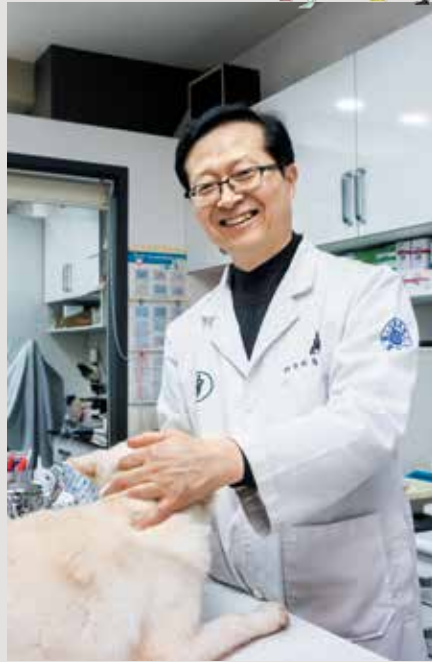
##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따스한 햇살은 아침을 빛낸다.  
‘반려견과 산책하기 좋은 날’이라 생각되는 날씨.  
그러나 어떤 동물에게는 아직도 살을 에는 날씨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다.  
주인의 무관심 속에 버려진 유기견들에게는 따스한 봄날도  
남들 얘기일 뿐이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최준근 자유사진가

### 절망 속에서 놓지 않는 희망 ‘유기동물보호소’

유기되거나 실종된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공고를 내서 보호하는 곳이  
‘유기동물보호소’이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소유권이 각 지  
자체로 넘어가게 되고, 이후에는 새로 입양을 보낼 주인을 기다리거나 상황에  
따라 안락사를 시키게 된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군구별로 유기동물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서구에 위  
치한 가정동물병원은 전국적으로 유기견 입양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현재 입  
양률은 80~90% 정도입니다. 병원 고객과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블로그 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10년간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맡아온 가정동물병원 양  
해용 원장은 유기견 입양문화가 차츰 확산되고 있지만 지난해 서구에서 발견한  
유기견만 1,200마리라며, 견주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끝까지 동물을 책임  
질 수 있는지 자문하고, 경제적 여건도 냉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애완견이 아  
니라, 반려견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개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입  
양할 개가 없어서 대기해야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더 이상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버려지는 동물이 없길 바라본다.



버려지는 동물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가정동물병원 양해용 원장.



회원들의 사랑과 무한한 신뢰 덕분에  
지금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임송희 대표.

### 버려졌으나, 다시 행복해지길 ‘행복한 유기견 세상’

지난 2007년에 문을 연 인터넷 다음카페 ‘행복한 유기견 세상’, 일명 ‘행유세’는  
정부 지원 없이 회원들의 봉사와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유기견 보호단체다.  
남동구에 있는 보호소 이름은 ‘사랑터’. 버려지거나 구조된 50여 마리의 강아지  
들이 이곳에서 보호되고 있다. 행유세의 주된 활동은 안락사 대기 1순위에 오  
른 유기견들을 사랑터로 데려와 보호하면서 입양처를 찾아주는 것이다. “10여  
년 전, 유기견 입양을 알선했던 인터넷 카페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많은  
개들이 갈 곳을 잃게 됐지요. 당시 카페 회원 몇 명이 자비로 작은 보호소를 설  
립한 게 사랑터의 시작입니다.”  
어느새 6만3,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게 된 ‘행복한 유기견 세상’의 임송희  
대표는 “현재 행유세를 이끌어가는 많은 운영진들은 대가 없이 자원해서 활동  
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유세는 회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카페는 회비를 내는 참여회원  
모두에게 매달 통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으로 입양 가서 잘 살고 있는 유기견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임 대표.  
그는 무엇보다 유기견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모든 개들이 처음  
부터 유기견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생이 유기견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터의 하루는 오늘도 바쁘다.

###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제정·공포

우리 시는 올해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드는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제반 비용의 50%를 지원  
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10만 원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6월 5일 학대·유기행위로부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관련 조례 제정은 인천시가 광역시 중 첫 번째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원칙 수립과 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관리, 소유자의 책임 규정 등이다. 또 피학대동물·유기동물이 신고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반려동물 보호 실  
현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선 구·군,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하도록 했다.  
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동물보호의 범위를 뛰어넘어 반려동물의 유기·학대행위(자)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엄정  
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시 농축산유통과 동물관리팀 ☎ 440-4398





# 희망 퍼 올릴 두레박 품고 떠나다



옛 지도 속 십정리(십정동)



1948년 함봉산에서 수봉산 방향으로 찍은 사진(부평역사박물관)

터의 무늬가 다시 한 번 바뀐다. ‘열우물 마을’이라 불리는 십정동, 그 터의 무늬는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인천의 끝 땅으로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던 북망산에 6·25 전쟁 후 피란민이 들어와 말뚝을 박고 울타리를 쳤다. 이후 도심에서 쫓겨 온 철거민들이 언덕 기슭에 판잣집과 흙벽돌집을 짓고 솔단지를 걸었다. 인근 염전이 거대한 공단으로 조성되면서 전국 팔도에서 온 노동자들은 산꼭대기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곳은 인천의 대표적인 산동네, 달동네가 되었다. 시간의 켄가 층층이 쌓인 그 동네는 지금 빈 등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떠났다. 열우물에서 퍼 올렸던 희망의 두레박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떠났다. 이제 그 터에는 새로운 무늬가 그려진다.

사진·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2017년



2017년



2006년

이곳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국유지 야산에 드문드문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던 이 마을의 모습은 1960년대 후반 철거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틀이 잡혔다. 도화동과 울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들어왔다. 선인학원은 1964년부터 남구 도화동 대지 53만㎡(16만평)에 무자비한 불도저를 앞세워 거대한 상아탑을 세웠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줄지에 ‘철거민’이 돼 십정동으로 이주했다. 서럽고 지겨울 법도 한데 자신들이 모여 살게 된 곳을 ‘도화촌’이라 불렀다. 1967년 들어 한 무리의 이주민들이 다시 이곳에 짐 보따리를 푼다. 서구 울도에 인천화력발전소가 조성되면서 쫓겨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울도촌’이라 불린 집단 거주지를 마련한다.

열우물 마을



# 십정동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09년



앞집의 어깨를 짚고 다른 집이 올라섰다. 이웃과 내 집을 나눌 담은 없다.

담을 칠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산 모양을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었다. 오를 수 있는 곳까지

집들이 들어섰다. 그렇게 산동네가 되었다. 식구가 늘어도 집터를 한 뼘도 늘릴 수가 없었다.

집 위에 쪽방을 올렸다. 애초에 무허가이니 무단으로 방을 냈다. 사다리를 만들어

지붕 한 귀퉁이에 장독대와 텃밭을 만들었다.

십정동에는 건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기형적 주택이 즐비했다.

사람이 모여 사니 작은 시장이 생겼다. 산 아래로 난 길 양쪽으로 2층 상가가 뻗어 있었고 그곳에 약국, 정육점, 비디오 가게, 목욕탕, 방앗간, 빵집 등이 들어섰고 저녁때만 되면 사람들로 시끌벅적했다. 매년 시장 공터에서는 열우물 마을 축제가 열렸고 마을 입구에 낮이면 일 나간 부모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해님공부방’이 문을 열었다.



2009년





2017년



2016년

위험  
 무너집니다  
 연수도독임 누수팀



2015년



2017년



2018년

10여 년 전부터 개발 소식이 들렸다. 모조리 헐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주민들은 집에 대한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 새면 새는 대로 비면 비는 대로 그대로 놔뒀다.  
 동네가 급속히 늙어갔다. 허물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2014년 이미 전체 1,488 가구 중 60%가 빈집이었다.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첫 삽을 떴다.  
 19만2,687㎡ 규모에 총사업비 1조1,621억 원이 투입돼 2021년 완공될 계획이다.  
 이곳에 5,678가구, 1만4,000여 명이 입주한다. 십정2구역은 예전의 철거 후  
 재개발 방식에 도시재생 뉴딜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지 공간이다.

열우물에서 다시 희망의 두레박질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열우물



## ‘열우물 체게바라’ 꿈꾸는 싱어송라이터 강현구

사진 김보섭 | 글 유동현



이태 전쯤 십정동 골목을 다니다가 담벼락에 붙은 낡은 포스터 한 장을 보았다. ‘열우물 재개바라 콘서트’. 동네 가수 ‘강현구’도 출연한다고 적혀 있었다. 기발한 콘서트 이름과 마을 축제 무대에 설 그 동네 가수가 궁금했지만 이미 철 지난 포스터였다. 지난해 연말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부평 마지막 달동네 열우물연가’ 토크콘서트에서 그 동네 가수를 봤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십정동 관련 노래 몇 곡을 불렀다.

강현구(35) 씨는 1983년 동인천에서 태어났다. 세 살 때 십정동으로 이사 오면서 산동네와 인연을 맺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동네 이름을 ‘열우물 마을’이라고 달달하게 읊어서 부르고 있지만 그곳의 삶은 산비탈 길만큼이나 구불거렸고 가팔랐다. 주민들은 1960~70년대 인천 도심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거나 주변 산업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

1986년 그 달동네에 해님이 떴다. 일 나간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해님놀이방과 해님공부방이 생겼다. 어린 강현구도 이곳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집안 형편이었다. 그는 ‘돌아온 연어’가 되었다. 후에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해님방에서 5년 동안 아이들의 선생님이 된다.

그는 인천고 재학 시절 학교 밴드에 들어가 기타를 쳤다. 지역 청소년 밴드 선배들을 통해 연주는 물론 곡 쓰는 법도 어깨 너머 익혀 갔다. 부천에서 데뷔해 본격적으로 홍대, 신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습작을 포함해 30곡을 만들었고 앨범을 두 번 냈다.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그를 다시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정월 대보름날이었다. 그 어느 곳보다 큰 달이 떴을 그 달동네를 함께 찾아갔다. 십정동 216-159. 그가 30년 동안 살았던 집주소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빈집을 선뜻 들어가지 못했다. 세간살이 다 나가고 마구 형클어진 흔적을 보기가 유쾌한 일은 아니었으리라. 골목으로 작은 창이 나있고 다락이 딸린 작은 방이 그의 동지였다. 그 또한 재개발로 인해 얼마 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멀리 가진 못했다. 십정동 끝, 경계에 집을 풀었다. 그는 이곳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도 못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가난한 무명 가수에게는 언감생심일 뿐이다. 꿈이 뭐냐고 물었다. 러시아 횡단열차를 타고 유럽에 가서 인천을 담은 노래로 버스킹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는 노래로 저항한다.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노래한다. 지난 4년 동안 매년 초겨울 ‘재개바라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해 왔다. 인천 출신 가수 이권영을 비롯해 홍대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재개바라’는 재개발되는 십정동을 빗대어 그가 직접 지은 이름이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를 보니 문득 체게바라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적부터 살던 우물 많은 우리 동네 / 다들 가난했지만 정은 많았었지 / 어디로 갔을까 그 많던 사람들 / 이제 몇 집 안 남아 그 자릴 지키고 있는데 / 모두 떠난 자리에 우리 집도 낡았고 / 무너진 저 집처럼 점점 더 가라앉고 있는데 / 언젠가 될지 몰라 여길 나가야 하는 것도 / 정들었던 우리 동네 모두 다 떠나야겠지 언젠가는.

(강현구 작사 작곡 ‘열우물길’에서)





CULTURECALENDAR

04

01

선데이 콘서트-  
더 브라스 퀸텟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03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SAC ON SCREEN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무료(전화 예약 후 선착순 입장)  
☎ 460-0560

04

인천시립합창단  
‘오라토리오 아리아의 밤III’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4월 5일까지 공연  
오후 7시 30분  
무료  
☎ 438-7773

교육뮤지컬  
‘딩동이의 치카푸카’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9시 50분, 11시  
일반 2만원, 단체 8,000원 (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한함)  
☎ 010-2898-0014

05

제15회 남동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53-2132

06

연극 ‘크레이지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4월 8일까지 공연  
6일/ 오후 8시  
7일/ 오후 4시, 7시  
8일/ 오후 3시  
전석 3만원  
☎ 1600-1716

07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8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4월 8일까지 공연  
7일/ 오후 6시  
8일/ 오후 5시  
전석 7만7,000원  
☎ 1566-6551

어린이뮤지컬  
‘프린세스 공주뮤지컬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4월 8일까지 공연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R석 3만5,000원, S석 3만원  
☎ 1670-7343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후 2시, 4시  
현장구매가 3만원, 사전예매가 1만원  
(인터파크)  
☎ 010-4272-0002



08

선데이 콘서트-  
노선경 오르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10

가족뮤지컬 ‘브레멘음악대’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 4월 11일까지 공연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전석 1만원  
☎ 02-929-4449

13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2회  
정기연주회 ‘슈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인천시립무용단 제82회  
정기공연 ‘건너편, Beyond’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4월 14일까지 공연  
13일/ 오후 8시  
14일/ 오후 5시  
전석 2만원  
☎ 1588-2341

클라라주미강 리사이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R석 4만원, S석 3만원  
☎ 500-2000

김지성 오르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289-4275

14

최백호의 청춘콘서트  
‘회귀:回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R석 9만9,000원, S석 7만7,000원  
☎ 1688-6675

15

2018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  
‘클래식 재즈를 만나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  
☎ 02-337-3103



뮤지컬 터닝메카드R  
‘최후의 레이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4만5,000원  
☎ 1688-6675

선데이 콘서트-  
전진주 바이올린 리사이틀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18

커피콘서트  
어쿠스틱 앙상블 재비,  
인천으로 온 ‘재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21

2018 컬투쇼 콘서트  
‘관중’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VIP석 9만9,000원,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 1522-2061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4월 22일까지 공연  
2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22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R석 1만5,000원, S석 1만2,000원  
☎ 02-747-9988

어린이뮤지컬  
‘시크릿쥬쥬 Original’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 4월 22일까지 공연  
2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22일/ 오전 11시, 오후 2시  
R석 2만5,000원, S석 2만원  
☎ 070-7204-7000

비와이X컨템포디보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 500-2000



22

인천시민 및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초대 (4월 3일부터 전화 접수)  
☎ 833-0088

선데이 콘서트-  
코리아 플루트 솔로이스츠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24

인천여선교합창단  
3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3-6006

25

제12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축하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30분  
무료  
☎ 437-8501

마티네콘서트 마실  
신지예밴드의  
‘시네마&뮤직 콘서트’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3,000원  
☎ 460-0560



26

연극 작은 악사  
(Little Musician)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전 10시 30분  
선착순 무료  
ghdwhdgmil@ice.go.kr로 접수.  
36개월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단  
체 관람만 가능  
☎ 899-1517

2018 브런치 콘서트,  
양희경과 함께하는  
‘달콤한 클래식’ -  
첫사랑, 달콤 쌉싸름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1만5,000원  
☎ 500-2000

가족뮤지컬 ‘아기공룡 크로롱’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0시 20분  
전석 6,000원  
☎ 1666-1318

28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4월 29일까지 공연  
오전 11시, 오후 2시, 5시  
R석 5만5,000원, S석 4만4,000원  
☎ 1566-6551

인천시립극단 제76회  
정기공연 ‘너의 후일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5월 6일까지 공연  
화~금요일/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 오후 4시  
전석 2만원  
☎ 1588-2341

가족뮤지컬  
‘바다탐험대 옥토폰 -  
불가사리의 모험’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4월 29일까지 공연  
28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29일/ 오전 11시, 오후 2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 070-8728-1215

블라디미르 옴치니코프  
내한공연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5시 30분  
전석 2만원  
☎ 289-4275

가족뮤지컬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 4월 29일까지 공연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정상가 3만원, 예매가1만5,000원  
(인터파크)  
☎ 010-2284-4842

29

선데이 콘서트-  
이윤석 하모니카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제33회 인천일요사진전

4월 3일~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 전시실

유옥순 개인전

4월 3일~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10회 동구수채화전

4월 3일~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인가조각회 정기전

4월 3일~12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이인숙, 우주전

4월 3일~12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봄길 위에 서다(Art Fair)

4월 10일~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인천민화협회 창립전

4월 10일~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차영미 개인전

4월 10일~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미술,사진)전

4월 17일~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2회 인천원로작가전

4월 17일~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제12회 경인민물화 작가회 정기전

4월 17일~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제3회 인천문화작가회전

4월 17일~26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전시회 ‘마음을 전하는 도구’

4월 17일~26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박선영 개인전

4월 24일~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 전시실

제2회 한우리의 한국화전 ‘인천 먹 향기를 찾아서’

4월 24일~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구상작가회전

4월 24일~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인스타지아-겨울정원

3월 14일~6월 10일  
송도 IBS타워 14층 기획전시실



## 활력소가 필요해! 봄꽃 같은 4월의 공연

언제 외투를 입었나 싶은 완전한 봄 날씨입니다.  
따스한 햇볕은 우리를 잠시 노곤하게 만듭니다.  
낭만주의 작곡가 슈만에서 묵직한 목소리의 가수 최백호까지  
봄의 들판처럼 다양하고 개성 있는 명품 공연을 소개합니다.



### 봄 가운데 흐르는 슈만의 낭만적 선율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2회 정기연주회 ‘슈만’

인천시립교향악단의 4월의 작곡가는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입니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슈만의 작품은 낭만과 사랑의 계절 봄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음악의 동시대적 해석을 위한 노력과 소통을 추구하는 이병욱 지휘자와 함께하는 이번 공연으로 자칫 나른해 질 수 있는 4월에 악센트를 더하길 바랍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4월 13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000원

### 삶의 건너편, 몸짓으로 표현한 윤희의 시간 인천시립무용단 제82회 정기공연 ‘건너편, Beyond’

2018년 봄 시즌 정기공연 인천시립무용단의 ‘건너편, Beyond’는 강렬하고 자유로운 몸의 언어로 삶과 죽음의 회화를 그립니다. 이번 무대는 서로 다른 춤의 장르를 혼합하는 크로스오버를 통해 더욱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방식으로 공연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 재료인 몸으로 표현하는 춤 예술의 세계에 폭 빠져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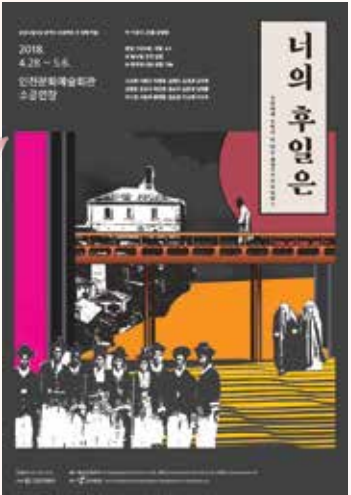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4월 13일 오후 8시, 14일 오후 5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



###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을 나누다 2018 브랜치 콘서트, 양희경과 함께하는 ‘달콤한 클래식’ - 첫사랑, 달콤 쌉싸름한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개성 있는 연기와 목소리로 사랑받는 배우 양희경의 이야기와 다양한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는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첫사랑입니다. 브랜치 콘서트 ‘달콤한 클래식’은 잊고 있었던 첫사랑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예매 www.bpcf.or.kr, ☎ 500-2000  
일시 4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전석 1만5,000원



###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가슴 벅찬 이야기 인천시립극단 제76회 정기공연 ‘너의 후일은’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유쾌하고 서정적인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서구의 근대문물이 들어오는 통로 중 하나였던 인천의 옛 모습이 담긴 이번 공연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 시대 젊은이들의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4월 28일~5월 6일 / 화~금요일 오후 7시 30분 / 토·일요일 오후 4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

### 세대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보이스 최백호의 청춘콘서트 ‘회귀 : 回歸’

깊고 무거운 목소리로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묵직한 감동을 선사하는 가수 최백호가 인천을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열정으로 청춘이라는 이름의 콘서트를 여는 최백호의 힘찬 목소리를 감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688-6675  
일시 4월 14일 오후 6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9만9,000원, S석 7만7,000원





# NEWS BRIEF

## 인천 서구~부천 원종~서울 홍대, 지하철 연결 추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노선 조정 등 최적 노선 선정 예정



우리 시 서구와 계양구에서 경기도 부천을 거쳐 서울 홍대에 이르는 지하철 노선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서구·계양구·경기도·부천시 등 5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3월 20일 오후 부천시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부 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업무 추진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인천시 서구~계양구~부천 원종 구간(총 12.3km)을 지하철로 연결하는 건설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조 6,347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구간이 지하철로 연결되면 이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부천 원종~서울 홍대 구간(16.3km)과 이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청라

국제도시 등 인천 서부지역 시민의 서울 서부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5개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 노선 발굴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뒤 2021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해 2030년 개통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인천 서구~부천 원종동 노선은 2026년 개통이 예정된 서울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 인근 ‘002역(가칭)’을 출발해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과 인천 1호선 작전역을 거쳐 부천 원종동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시 철도와 ☎ 440-3894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

우리 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심 외곽 지역에 시설 분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급관 길이 100m당 30가구 이하 지역 등 도시가스 사업법상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총 5억 원 규모의 보조금은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에 납부한 시설 분담금의 50% 이내,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희망 가구는 주민 대표를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4월 9일까지 군·구 도시가스 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시 에너지정책과 ☎ 440-4342

## 뉴딜 사업 공모 전담조직 구성

우리 시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준비를 전담할 도시재생추진단을 운영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매년 100곳 내외를 선정해 50억~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시는 작년 68개 시범사업 지역 중 5곳이 선정돼 전국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추진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군·구와 관계기관 관계자 등 32명으로 구성됐다. 3월 공모 계획 발표 후 6월 공모 접수, 8월 대상사업 선정 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워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시 도시재생과 ☎ 440-4502

##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상 수상



우리 시는 지난 3월 9일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차별화한 발전 전략과 경쟁력 있고 개성 있는 정책들을 경연하는 장으로, 우리 시는 공공디자인, 사회복지서비스, 환경관리 3개 부문에 응모했다. 특히, 인천형 공공디자인 ‘모두 함께,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근로자가 웃는 행복한 일터, Let美 공장’시책으로 신·구도심 균형발전, 노후 산업단지·공장 이미지에 개선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함께 시민참여를 이끌어 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문의 : 시 평가담당관실 ☎ 440-2112

## 저소득층 이사 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우리 시는 올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무료 이사 서비스인 ‘행복 나르미 이사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다.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으로, 월세·전세 거주지로 이전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사 서비스는 평일만 제공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이사 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서를 지참하고, 각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100가구에 우선 지원한 뒤 시행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문의 : 시 공공복지과 ☎ 440-2932



## 친환경 저녹스 버너·보일러 지원

우리 시는 미세먼지·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저녹스(低NOx·질소산화물) 버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제품으로 교체하면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만~1,429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용 일반 보일러 교체 땀 16만 원을 지급한다. 저녹스 제품으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약 60~80%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은 5~11% 개선돼 대기 질 개선과 연료비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의 : 시 대기보전과 ☎ 440-3505

## 예술동아리 국고지원 공모사업 당선

우리 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년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공모에서 당선됐다. 지원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강사 지원, 동아리 연합 워크숍 추진비, 동아리 활동 컨설팅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 아마추어 동아리다. 초·중·고교생 동아리와 역사, 독서, 감상동아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인천문화재단은 조만간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동아리를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 440-4023

## 인스로드 사업, 일자리정책박람회 우수상 수상

우리 시의 인스로드 사업이 지난 3월 11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시상식에서 우수 일자리 정책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는 지역별로 특화된 우수한 일자리 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우리 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인스로드’사업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로드(InsRoad)’는 인천의 산업시설을 탐방하는 길(Incheon Industry Road)을 줄인 말로, 사람 중심의 환경 우수 산업시설 탐방길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사업명칭이다.

문의 : 시 산업진흥과 ☎ 440-4264



## 5월 말까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실시

우리 시는 미세먼지·황사 등으로 대기 질이 나빠지는 봄철을 맞아 5월 말까지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CNG버스를 제외한 모든 경유버스 216대와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량 137대가 대상이다.

차고지 및 기점, 종점 등에서 시행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차량 정비·점검 안내 및 개선명령을 취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대기보전과 ☎ 440-8395



송현야시장, 스카이 미디어아트 점등



우리 시는 지난 3월 8일 동구 송현시장에서 ‘달빛거리 송현야시장 스카이 미디어아트 점등식’을 열었다.

시는 송현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아케이드 상층부 80m 구간에 LED전광판을 설치했다. 전광판에는 다양한 그래픽 화면과 문자, 사진 등이 표출된다. 모바일로 시장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입력하면 천장에 자신의 메시지가 표출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있다.

향후 시는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시장 내 모든 구간에 LED전광판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인천의 대표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문의 : 시 소상공인정책과 ☎ 440-4222

장애인 콜택시 ‘바로콜’ 차량 확충

우리 시는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인 ‘바로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을 확충했다.

우선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량은 올해 5대를 늘려 총 145대를 운영하고, 이 중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한 특장차량 20대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한다. 또 평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장애인의 연락을 받으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바우처 택시’는 120대에서 150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달부터 영종·용유지역에 전담 특장차 3대를 처음으로 배정해 외곽지역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 편의도 개선할 방침이다.

문의 : 시 택시화물과 ☎ 440-3802

편의점을 여성·아동 지킴이집으로



우리 시와 인천경찰청·한국편의점협회는 지난 3월 6일 인천시청에서 ‘여성·아동 지킴이집’ 협약을 체결했다.

지킴이집은 신변을 위협하는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과 아동이 편의점으로 대피 후 도움을 요청하면, 점원이 비상벨을 눌러 경찰청 핫라인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와 인천경찰청은 우범지역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내 1,700개 편의점 중 1,000개를 지킴이집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757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방문 제작 시행



우리 시는 중증 지체·뇌 병변 장애인의 체형 변형을 막기 위한 자세유지기구 보급 확산을 위해 방문 제작 서비스를 시행한다.

종전에는 자세유지기구 사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노틀담복지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치료사·보조공학사 등 기구 제작진이 장애인 시설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의 체형을 측정하고 형상을 3D 데이터로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제작·보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3,182건을 지원했다.

문의 : 시 장애인복지과 ☎ 440-2947

인천소방본부 비상소화장치 10개 추가 설치

인천소방본부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8천만 원으로 비상소화장치 10개를 추가 설치한다.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불을 끄는 시설로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 길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인천에는 비상소화장치가 314곳에 있다.

소방본부는 올해 주민이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소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의 : 인천소방본부 ☎ 870-3094



1년 넘게 방치된 폐·공가 정비

우리 시가 원도심 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폐·공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중구·동구·부평구 등 원도심 지역 폐·공가 1,631채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붕괴·균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철거·폐쇄하고, 우범지역 폐·공가는 관할 경찰서·자율방범대 협조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폐·공가 관리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919채를 정비했다.

문의 : 시 주거환경과 ☎ 440-3489

청라 호수공원 이달부터 수상 레포츠 허용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에서 이달부터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경제청은 4월 1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인천 청라 호수공원에서 카누, 카약 등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이며 16세 미만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단, 이용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문의 : 청라 호수공원 이용안내소 ☎ 563-6262

내 집 주차장 ‘그린 파킹’사업 시행

우리 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그린 파킹(Green Parking)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고 수목 담장을 설치해 주는 프로젝트다. 이웃이 상호 동의하는 경우 인접 주택 사이에 공동설치가 가능하다. 또 안전을 위해 현관문 교체 및 방범창, 무인 방범 시스템 설치비도 지원한다. 신청은 각 구의 그린 파킹 담당부서에서 선착순 모집 중이며, 전화로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 시 교통관리과 ☎ 440-3925



강화군 길상배수지 이달 준공  
단수 때도 12시간 급수 가능

강화군 길상배수지가 이달 안에 준공된다. 작년 1월 착공돼 총 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길상배수지는 저수용량 4,500t급의 배수지로, 강화 남부지역 1만5,000명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급수를 하게 된다.

시는 단수 때에도 12시간 이상 급수가 가능한 길상배수지가 가동되면 주민 단수 피해가 전보다 훨씬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강화군청 ☎ 930-3354

청년 창업 지원 ‘인스타 카페’ 7월 개장

우리 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남구 경인로 229 인천 IT 타워 로비에 ‘인스타 카페’를 조성해 7월 개장할 예정이다.

인스타 카페는 창업 당사자, 투자자, 멘토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된다. 또 인천의 창업 지원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거점의 창업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창업지원과 ☎ 440-4168

골목길 노후 조명 LED 램프로 교체

우리 시는 주요 도로의 가로등과 골목길 보안등을 친환경 LED(발광다이오드) 램프로 교체한다.

교체 대상은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한 램프로 가로등 2,332개, 보안등 4,510개 등 6,842개다. 사업비는 총 35억 원이다.

시가 올해 이들 램프를 교체하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효과와 함께 연간 4억300만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 시 도로과 ☎ 440-3784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우리 시는 오는 6월까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2억6,000만 원을 들여 과속경보시스템과 횡단보도 투광기를 각각 10개씩 설치할 예정이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운행차량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며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며, 횡단보도 투광기는 야간시간대나 비가 올 때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조명시설이다.

문의 : 교통정책과 ☎ 440-3866



IFEZ NEWS

진화하는 ‘IFEZ 스마트시티’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IFEZ의 스마트시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5·7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내년 7월 준공한다. 광통신 기반망 공사 등 총 1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구역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교통정보, 방범·방재, 생활환경정보 등이 스마트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6공구에는 통신 관로 구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8공구에는 지난해 7월 도로 및 공동구 내 통신 관

로 구축공사가 완료돼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입찰 공고 중에 있다. 또 영종지구에는 하늘도시 1단계 사업(575억 원)과 미단시티 사업(176억 원)이 막바지 공사 단계다. 신세계 복합 쇼핑단지가 들어서는 청라 투자2블록에는 지난해 7월 통신 관로 사업이 완료됐으며, 올 상반기 중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착공해 내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IFEZ의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은 ▶1단계(2003~2009년) 유시티 전략 수립과 서비스 기본설계, 현장 인프라 중심의 시설 구축 ▶2단계(2010~2016년) 운영센터 세부설계, 정부 유시티 시범사업, 서비스 세부설계 ▶3단계(2017~2022년)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구축, 공공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 공공·민간 서비스 확대 개발 등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IFEZ 벤치마킹 열기 후끈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인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15일 카자흐스탄 호르고스 특별경제구역청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호르고스 특별경제구역청장이 인천을 방문해 벤치마킹과 상호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이뤄졌다. 호르고스 특별경제구역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중국 국경에 자리하고 있다. 철도 교통을 기반으로 중국·중앙아시아중동을 잇는 물류 허브로 개발 중이며 접경지역에 신도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2일에는 지난해 새로 지정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주에 있는 기쉬두반 특별경제구역 개발을 위해 주지사가 경제청을 방문, 협력의향을 체결했다.

외국어 표기 오류, 신고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은 IFEZ 시설물의 잘못된 외국어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어 오류 표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외국어 홍보물 감수위원회는 IFEZ에 소재한 인천대, 조지메이슨대, 채드워 국제학교 등의 원어민 교수 3명과 경제청 외국인 전문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또 경제청은 홈페이지(www.ifez.go.kr)에 'IFEZ 외국어 오류 표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홍보물과 각종 도로 안내표지판에서 잘못된 표기된 외국어를 발견하면 홈페이지나 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453-7304)로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을 위한 한지 공예 강좌 개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15일 글로벌센터에서 올해 첫 글로벌센터 한국문화 강좌를 개최했다.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한국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20여 명의 외국인이 참석, 우리나라의 전통종이인 '한지'의 특성을 알아보고 한지 육각함을 직접 만들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악 강좌, 농악자도예 강좌, 다도, 서예 등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최해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AGE NEWS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바야흐로 #새로운 변혁의 시대

01



“다가오는 미래에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지?”  
인천에 산다면 걱정은 그만!

#스마트시티 인천은 #미래 성장 동력을 가득 채우고 #새 시대를 위한 #든든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02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준비된’ 인천

- IFEZ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스템, 특허 획득 해외 수출 박차
- 스마트시티 운영, IDC가 뽑은 2017년 도시행정 최우수 프로젝트 선정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자동차·바이오·로봇·스마트 공장 등 집중 육성

이미 #스마트하게 준비를 끝냈지!

03



다가올 미래가 궁금해?

인천으로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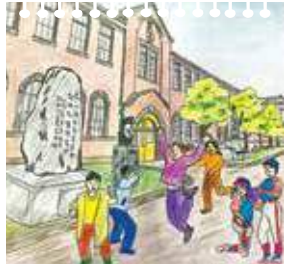
#미래 비전을 한껏 품은 #스마트시티 인천이 #4차 산업혁명의 #새 흐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04



‘굿모닝인천’ 3월호  
컬러링 인천 당첨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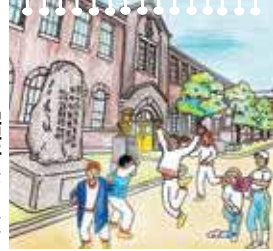
배은주 남구 용현동



김미숙 서구 완정로



이승경 남구 소성로



김진아 연수구 인권로



유영주 부평구 경원대로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의 목소리’

1994년부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 온 ‘진짜 인천,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  
‘굿모닝인천’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독자 설문 조사

귀하의 성별과 연령을 표기해주세요.  
성별:(남 / 여) 연령:(      세

Q1. ‘굿모닝인천’을 접해 본 경로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우편 배송
- 2)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 3) 학교, 도서관 등 교육기관
- 4) 지하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
- 5) 웹진/인터넷 서점 등 온라인 매체
- 6) 기타( )

Q2. ‘굿모닝인천’은 다음 중 어떤 성격의 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인천의 도시 정체성 및 가치 홍보 매체
- 2) 시민 대상 시 주요 정책 공유 매체
- 3) 시민 대상 시정 활동 홍보 매체
- 4) 시민 대상 시정 성과 전파 매체
- 5) 문화, 생활, 관광 등 정보 제공 매체

Q3. ‘굿모닝인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대체로 만족한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Q4.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 2) 인천 시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 3)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 4) 기타( )

Q5. ‘굿모닝인천’을 접한 후 인천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 1) 매우 좋아졌다
- 2) 대체로 좋아졌다
- 3) 특별한 변화가 없다
- 4) 대체로 안 좋아졌다
- 5) 매우 안 좋아졌다

Q6. ‘굿모닝인천’ 발행 형태는 오프라인(종이책)과 온라인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 1) 오프라인(종이책)
- 2) 온라인(이북, 웹진)
- 3) 오프라인(종이책) 중심 온라인(이북, 웹진) 동시 발행
- 4) 온라인(이북, 웹진) 중심 오프라인(종이책) 동시 발행

Q7. 문항 6의 답변에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Q8. 인천시와 ‘굿모닝인천’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독자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후

1) 우편 또는 2) 홈페이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후 사진파일첨부/또는직접기재)로 접수하세요.

보내는 방법은 우측 페이지 하단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만의 빛깔로  
인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세요.

4월, 이맘때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됩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

올해는 누구와 함께 흥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인천대공원의 벚꽃터널을 걸어볼까요?



인리수트 하보아 작가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브랜드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2) 홈페이지: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기간: 2018년 4월 20일까지 / 문의: ☎ 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5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 인천건축학생공모전

제15회 인천건축학생공모전이 ‘SHARING SPACE’를 주제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건축가를 꿈꾸는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 주제 : Sharing Space

응모 대상 : 전 지역 국내의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수상 상금 : 대상(1점) 500만원, 최우수상(1점) 200만원, 우수상(2점) 100만원

신청 기간 : 3월 12일~4월 13일

접수 기간 : 6월 11일~15일(1차 작품 접수, 시상은 10월 5일)

문의 :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① 437-3381~4 ④ cafe.naver.com/iafinformation



### 학산 영화마실 안내

학산생활문화센터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문해설가와 만날 기회로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관람 대상 : 시민 누구나(성인)

관람 일시 : 4월 26일 오후 7시

신청 기간 : 4월 3일~20일

신청 방법 : 전화 및 방문(무료)

문의 : 학산생활문화센터 ① 866-3993

### ‘신나고 재미있는 우리 동네 숲 탐험’ 안내

연수문화원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생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체험 대상 : 7~10세 어린이

체험 일시 : 4월 21일 오전 10시~낮 12시

참가비 : 1만원

접수 방법 : 연수문화원 방문 접수

문의 : 연수문화원 ① 821-6229

### 인천도시역사관

#### ‘인천도시탐구생활’ 교육 안내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인천도시탐구생활’을 진행합니다. 우리 시 이해에 도움이 될 이번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일시 : 4월 28일 오전 10시~12시(저학년),  
오후 2시~4시 30분(고학년)

교육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4층 교육실

교육 대상 : 초등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각 20명

수강료 : 무료

신청 방법 : ④ compact.incheon.go.kr 선착순 신청

신청 기간 : 4월 23일 오전 9시~26일 오후 6시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① 850-6016, 850-6030

### 뉴욕 필하모닉 협력 프로그램

####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꼬마 작곡가’ 모집

연수문화원에서는 뉴욕 필하모닉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꼬마 작곡가’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참가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교육 기간 : 4월 7일~7월 21일 매주 토요일

교육 장소 : 연수문화원 문화강좌 1실 및 소극장

참가비 : 무료

접수 기간 : 4월 2일 오전 9시~정원 모집 시까지

접수 방법 : 방문 접수(신청서 작성)

문의 : 연수문화원 ① 821-6229

### 한일 문화 교류

인천시립박물관-기타큐슈시립대학 교류전

#### 한국과 일본의 명절 음식



우리 시와 일본의 기타큐슈시는 1988년 자매결연을 맺었고, 인천시립박물관과 기타큐슈시립대학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제1회 교류전 ‘한국과 일본의 과자 문화’, 2015년 제2회 교류전 ‘한국과 일본의 급식 문화’에 이어, 2016년에는 제3회 교류전 ‘후루룩 국수, 스스로 소바’를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기타큐슈시립대학 교류 전시는 ‘한국과 일본의 명절 음식’을 주제로 양국의 음식 문화를 비교하고 이해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 2층 소전시실에서 서로 비슷한 절기의 명절 음식을 소개했다. ‘떡으로 신년을 맞이하는 한·일 식문화’ ‘삼짇날과 히나마쓰리(雛祭)’ ‘한국과 일본의 봄맞이 음식’ ‘한국과 일본의 단오’ ‘달을 좋아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전시 내용을 구성해 관람객의 흥미를 끌었다. 이번 전시는 기타큐슈시립대학 야오 게이스케 교수를 비롯한 문학부 학생들이 기획과 작품 설치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 기타큐슈시립대학생 인천 방문

전시 기획에 참여한 일본 대학생들은 전시에 맞춰 인천을 방문해 인천시립박물관 청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연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중구 개항장 일대를 견학하며 두 도시 간 우호 증진의 기회를 가졌다.







## 아이는 행복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을 나눕니다.  
300만 인천시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성장해 나갈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김나현(여아)  
2016년 11월 28일생·부평구

부모의 바람  
엄마와의 가장 놀이를 제일 좋아하는  
우리 나현아,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주렴~  
치안 걱정 없는,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인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는 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정하윤(여아)  
2017년 02월 8일생·남동구

부모의 바람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하윤이~ 지금처럼  
엄마 아빠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길... 아이를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육아정책과 복지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신지윤(여아)  
2016년 5월 8일생·부평구

부모의 바람  
화단의 꽃과 풀잎이 신기한지 연신 쓰다듬는  
지윤아, 작은 풀꽃도 사랑하며 사는  
감성 있고 세심한 사람이 되어주길~.  
인천은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지만,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산 주변이나 녹지 조성에도  
힘써주었으면 합니다.



### 잠깐!!

우리 시는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지원대상 : 맞벌이 가정이면 누구나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  
(정부지원 시간 초과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신청방법 : 맞벌이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구(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872

### 아기와 함께 찍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나 아이의 귀엽고 재미있는 일상을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아기 이름, 탄생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인천에서 성장할 아이에게 바라는 내용 및 인천시에 바라는 내용’을 함께 적어서  
메일(goodvoice@korea.kr)로 보내주시면 ‘굿모닝인천’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기는 출생 후~ 24개월까지 해당됩니다.)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 440-8304

## 브랜드, 철학을 팔다 LUSH

글 박혜란 시 브랜드담당관



클레오파트라가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목욕할 때 지렁이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양귀비와 서태  
후가 동안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제비집을 즐겨 먹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렁이 피부재생크  
림과 제비집 안티에이징 크림, 뱀독 노화방지 크림, 악어오일 탄력크림, 마유(馬油) 보습크림... 등등 오  
늘도 홈쇼핑 채널에서는 수많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며 집요하게 구매 욕구를 건드리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욕망과 욕구의 반대편에 서서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의 철학을 얘기해 볼까 한다. 러쉬(LUSH)는 동물과 환경, 사람의 조화로  
운 세상을 꿈꾸는 친자연주의 브랜드이다. 무분별한 산림벌채의 원인이 되는 팜오일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팜오일을 쓰지 않는 핸드메이드 비누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을 개발하며, 제품의 용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액상제품을 고체화했다. 또한 이러한 고  
체상품들은 포장재 없이 덩어리째 진열하고 고객의 주문 시 바로 제품을 잘라 낱장으로 된 종이에 싸서  
판매한다.

러쉬는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를 지양하고 화려한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무료 샘플을 나누어 주지도 않는다. 마케팅 부서 대신 캠페인 팀이 있어 환경보호와 동물실험 반대, 공정  
거래 등 이념과 철학이 담긴 캠페인을 전개한다. 하지만 이렇게 책임감 넘치는 범지구적 캠페인을 하는  
게 러쉬의 성공 비결은 아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제품에 있다. 러쉬는 온 지구를 찾아다니며 식물 천  
연재료들을 개발하고, 강렬한 색감과 향을 발산하도록 만들어 이를 포장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열한다.  
소비자들은 지나가다 러쉬 매장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강렬한 색감과 향이 눈과  
귀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자. 샴푸 하나, 보디로션 하나 사용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그것이 러쉬의 존재 이유다.



ETHICAL BUYING



NAKED! PACKAGING

HANDMADE

FRESHEST COSMETICS





포토에세이집

# 몽땅인천



사진·글 유동현  
발행 디자인재미

180쪽 / 국배판 변형 / 값 1만2,000원

장면을 ‘채집(採集)’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 사라져 가는 일상.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물건, 그 장소를 오가는 주민, 길가에 나온 세간살이… ‘굿모닝인천 편집장’인 저자는 2001년부터 디카(똑딱이)를 손에 쥐었다. 자동 모드로 설정해 놓고 인천을 담았다. 특별히 골목을 쫓아 담았다. 돌아서는 순간 다른 그림이 되는 인천의 술한 장면을 틔나는 대로 ‘채집’했다.

골목 풍경은 정형화돼 있지 않다. 봄, 겨울은 물론 비오는 수요일, 눈 내린 토요일이 다르다. 아침 햇살에 비친 골목, 저녁노을에 물든 골목은 변화무쌍하다. 무심코 집 앞에 내놓은 물건이나 담벼락에 걸쳐 놓은 이불은 유니크한 설치미술품이 되기도 한다. 장면은 바뀌어도 그곳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단지 쌓일 뿐이다.

우리는 ‘장소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집, 언덕, 우물, 공장, 정류장, 전봇대, 층계, 축대, 담장, 가게… 우리의 장소는 너무도 급히 소멸한다. 사라지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누구에게는 추억, 누구에게는 상처, 누구에게는 기록이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었다. 1부 ‘몽땅 인천’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달 ‘굿모닝인천’의 에필로그 페이지에 실린 것 중 50컷을 선정해 구성했다. 점점 닳아서 몽푹하게 몽그라진 ‘몽땅’ 인천이 모조리 죄다 꿈꾸길 바라는 마음에서 ‘몽땅’이란 제목을 붙였다. 언제부턴가 그 달치 ‘굿모닝인천’을 받으면 ‘몽땅’ 페이지에 무엇이 실렸는지 궁금해 뒷장부터 펼친다는 독자들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듣고 묶은 것이다.

2부 ‘한 컷, 한 줄로 풀다’는 저자가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한 컷씩 실었던 220컷 중 50컷을 선택한 것이다. 비록 한 컷이지만 그 속엔 파노라마가 담겨 있다. 그 이야기는 한 줄이면 충분하다. 풋, 하고 웃다 보면 심오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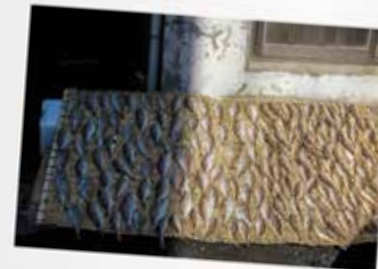
그 순간이 아니면 찍을 수 없던 장면들, 인천이기 때문에 채집할 수 있었던 모습들을 담은 이 책은 고맙게도 글이 짧아 책장은 술술 잘 넘어간다.



## 독수리 5형제 변기

설치 미술, 어렵지 않습니다.  
하얀 변기도 얼마든지 ‘오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골목을 다니다보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종종 접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아 있는 노천 갤러리는  
연중무휴, 무료입장입니다.

부평구 산곡동 백마장에서 (2015년 6월호)



인간사<sup>ㅅ</sup>처럼  
생선도 음지와 양지가 있다.

동구 송현동 수문통 골목



이 봄, 나도 싸돌아다니고 싶다.

중구 북성동 8부두 앞 새우젓골목



조르조 아르마니도 탐낼 숭숭 패션

중구 경동 찌리재 입구



아니 댄 골목에서 ‘구름’나다.

남구 송의동 제물포시장에서



# ‘굿모닝’ 인천



글 박인옥  
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뜨개질집 아줌마, 떡집 아줌마, 총무님, 병우 엄마, 꼬부랑 할머니, 권씨네, 시청집네, 개인택시네, 7통장네, 한밭집네, 국씨네, 미장원 아줌마, 만신네, 정숙이네... 굿모닝!

송의동 자그마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친정 부모님 동네 어르신들은 이 이름으로 매일 아침 서로를 확인하며 인사를 나눈다. 나의 학창시설을 온전히 이곳에서 보내고 떠난 지 30년도 훨씬 지났으니 어르신들 평균 연세 80세를 훌쩍 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요즘 세대에겐 이 이름들이 조금은 의아하거나 불량(?)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작년 한 국회의원이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을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불러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80세가 넘는 어르신들에겐 자신의 이름보다 삶의 여적이 뱀 이 호칭이 오랜 친구처럼 친근하다. 자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더 많은 숙내를 털어놓으며 서로 소통하는데 이러한 호칭은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다. 하루의 안부를 묻고, 생사를 확인하는 어르신들의 ‘굿모닝’ 화법이 공유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단독주택 생활의 불편함,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떠나야만 하는 낯은 주거환경에 대한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아파트 주거환경의 익숙함과 개발사업이 가져다주는 은밀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를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다. 이것은 아침을 여는 따뜻함과 진정한 에너지를 담은 그들만의 ‘굿모닝’ 화법이 있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굿모닝’은 계절의 생명을 담은 에너지다. 봄이 시작되면 꽃피울 화분이 집마다 마당과 장독대를 채운다. 마당과 장독대는 상추, 고추, 쪽파, 오이, 토마토 등 굳이 시장을 가지 않아도 여름 한철 먹을 수 있는 텃밭이다. 부족하면 권씨네, 떡집 아줌마네 어디든 대문을 두드리면 나눌 수 있다. 친정 부모님이 사는 집 마당과 옥상의 텃밭도 올여름 동네 어르신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 개의 시커먼 고무통에서 별 탈 없이 몇 년째 자라는 무화과나무 열매와 색색이 익어가는 방울토마토가 달릴 때마다

손주와 어르신들 간식으로 사랑받을 것이다. 창틀에 올라타 붉은 몽우리를 터뜨리는 별꽃이 몇 개나 달렸는지 세어보고, 노란 오이꽃의 생명을 매일 아침 확인할 것이다. 서로의 생명을 확인하는 것이 어디 사람뿐인가. 연꽃이 자라는 또 다른 붉은 고무통의 물은 참새의 목마름을 달래는 공급처가 되어 줄 것이다.

‘굿모닝’은 삶의 고단함을 보듬어 주는 에너지다. 김치 반찬 하나에 한 술 끓인 점심 국수가 ‘동네 잔치’가 되고, 고스톱은 치매 예방을 위한 놀이터가 된다. 국수와 고스톱은 정보를 공유하는 매개다. 이번 한파에 터진 수도 수리비용을 자식들이 보태주었는지, 아들딸이 언제 찾아오고 용돈을 얼마 주었는지, 손주가 어느 대학에 입학했는지 등 떨어져 사는 자식들의 정보를 공유한다. 암을 앓고 있어 김장을 못 한 꼬부랑 할머니, 빙판에 팔이 부러진 떡집 아줌마, 치아가 부실하여 제대로 식사를 못 하는 골목집 아줌마, 무릎관절이 아파 고생하는 뜨개질집 아줌마, 치매를 앓고 있는 국씨네 등 근황을 공유한다. 반질반질해진 10원짜리 동전은 ‘굿모닝’의 에너지를 담아 공동 복주머니를 채운다. 그리고 누구랄 것 없이 김장김치를 나누고, 죽을 쑤어다 주며,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손 잡고 나들이 간다. 미림극장에서 단체 영화 관람으로 추억을 나눈다.

하지만 ‘굿모닝’의 에너지도 몇 년 전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30여 가구가 살던 곳은 하나둘 파헤쳐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섰다. 높은 건물은 온종일 집 마당을 비추던 해를 가렸다. 허물어 없어진 집터는 동네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바뀌었지만 텅 빈 주차장은 굳게 자물쇠로 잠겨 있다. 골목길 주차 차량이 늘어나면서 집 앞 뒷자리도 사라졌다.

오래고 낯은 환경의 주거 지역은 단지 허물어 버릴 대상이고,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약속의 땅이 되고 있다. ‘굿모닝’의 에너지를 해체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행정을 두고 누군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市政)이라고 말한다. ‘굿모닝’ 인천이 ‘굿바이’ 인천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人能弘道 非道弘人 인능홍도 비도홍인 : 사람이 道를 넓혀나가는 것이지 道가 사람을 넓혀주는 것이 아님 - 공자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고, 사람이 중심에 있을 때 가장 민주적인 국가, 사회로 변화,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자 함.

## 소이작도 검팽나무



사진 오인영 남구사진인연합 회장

조선 왕조 500년, 그보다 더 오랜 세월  
나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망부석처럼.  
오래전 해적이 은거했던 외딴섬 해안,  
바닷물의 염분과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아랑곳없이  
나무는 땅과 바다의 경계 즈음 뿌리를 내렸다.  
응달에도 양달에도, 바닷바람에도 바닷물에도  
시들지 않는 이 나무는 하나둘씩 늘어나 군락을 이뤘고  
사람들은 그 강인한 생명력을 경외하기 시작했다.  
지난 600여 년 섬마을 사람들의 안녕安寧을 지킨 파수꾼.  
살아남은 나무들은 지금도 우뚝 서  
물사람이 쉬어 가는 고즈넉한 별안 해변을 바라본다.